

# 불교의 도래... 동아시아를 변화시키다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 프롤로그- 불교, 동점의 여정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는 지금까지 약 2,500년 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세계종교이자 뛰어난 철학 체계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해 왔다. 불교는 이들 지역 사람들의 사유와 심성, 신앙과 내세관, 수행과 실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화를 창출하였다. 불교는 붓다에 의해 제시된 사상적, 수행론적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이후 수많은 거장들의 노력에 의해 변화, 확장된 고도의 사유체계이자 인간의 근원적 고통 해소와 생사윤회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하는 실천적 종교이다. 붓다는 삶과 존재의 핵심적 가치를 꿰뚫은 선각적 사상가이자 수행자였고, 그의 가르침은 고통의 집요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중생구제의 실천적 삶을 여는 상생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붓다가 살았던 기원전 5~6세기는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처음 맞이한 인문의 여름기였다. 이 시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의 개화기이자 공자를 위시한 중국의 제자백가가 출현한 때였다. 당시 그리스와 인도, 중국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일왕조의 전제군주가 아닌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왕정이나 공화정의 경쟁, 제후들에 의한 정치적 각축전이 펼쳐졌다. 이에 다양한 정치·철학·종교적 주장이 분출되었고 많은 혁신적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인문학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인도에서는 브라만교에 대항하는 일군의 자유사상가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대표자 중의 하나가 바로 붓다였다.

붓다가 되기 전의 고타마 싯다르타는 기원전 560년경 현재 네팔의 남부지역에 있는 룸비니에서 사가 부족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부친은 카필라국의 국왕인 슈도다나(정방왕), 모친은 마야부인이었다. 탄생 직후 현인들이 와서 그가 전륜성왕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이에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의 싯달타로 이름을 지었다. 부왕은 아들이 자신을 잇는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랐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의 고통이나 추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궁궐을 빠져나가 생로병사의 현실과 삶의 고통을 목격한 사문유관을 경험하였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29세에 출가를 단행한 후 6년간 고행을 하였는데 고행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겨 설산에 들어가 홀로 수행에 정진하였다.

마침내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번뇌를 완전히 끊은 궁극의 지혜를 얻어 깨달은 이인 붓다가 되었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정법인 다르마에 대해 검증하고 확신한 후 7주가 지나 설법을 결심하였다. 붓다가 처음 설법한 곳은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법의 수레를 처음 굴린 초전법륜을 행하였다. 전에 함께 고행을 했던 다섯 수행자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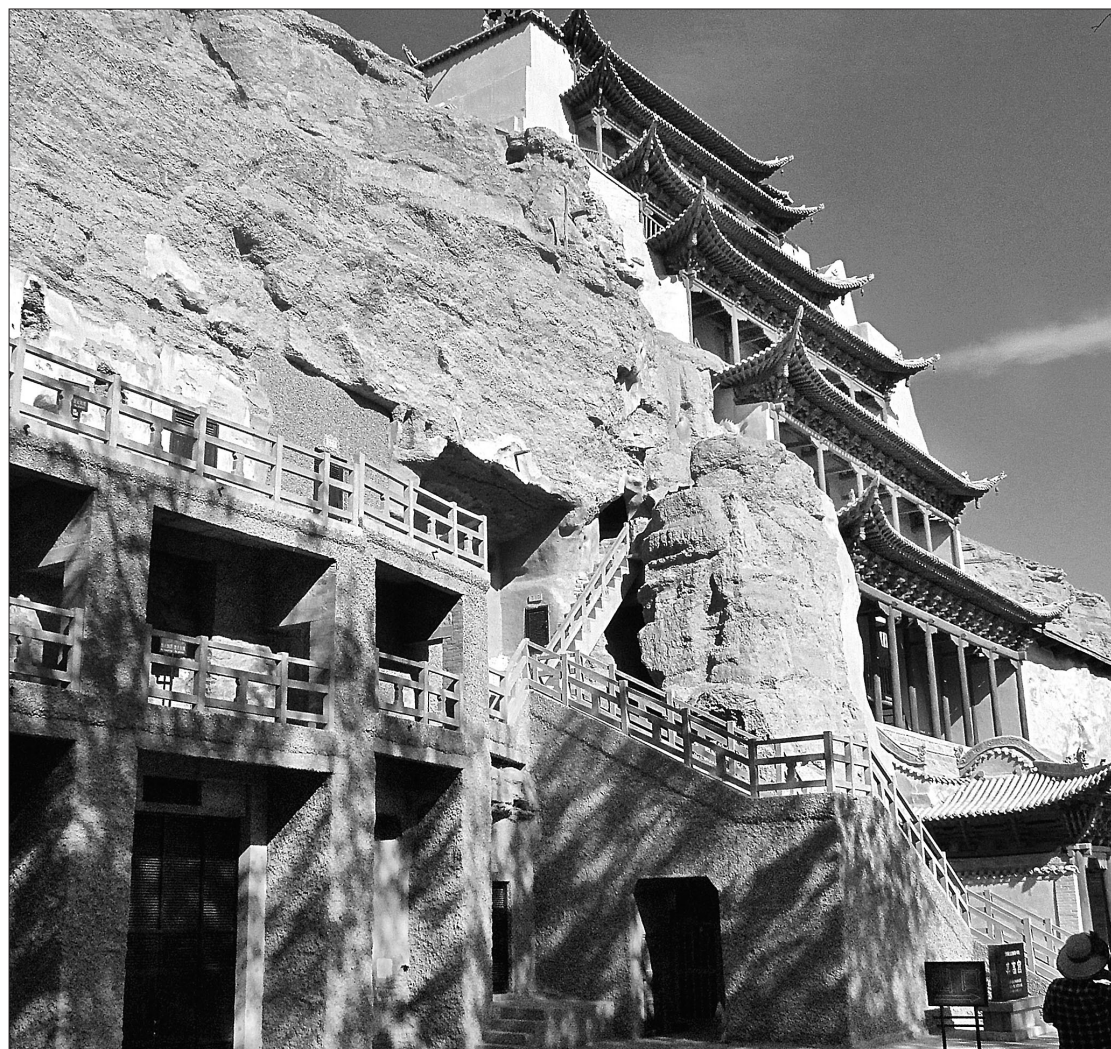
하자 이들은 바로 깨달음을 얻어 첫 제자가 되었다. 이로써 붓다와 다르마, 불제자가 갖추어진 불법승의 삼보가 성립되었고 무소유와 평등, 화합을 원칙으로 하는 불교교단이 출현하였다. 붓다가 깨달은 다르마의 내용은 현상세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한 12연기, 미혹과 깨달음에 대한 진리인 고·집·멸·도의 4성제, 고와 락의 중도를 통해 열반에 드는 바른 길을 제시한 8정도, 다르마의 세계를 구조화한 제행무상·제법무아·열반적정의 3법인, 물질과 그에 대한 인식 등 현상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분석한 색·수·상·행·식의 5온을 핵심으로 한다.

붓다의 지향점은 철학적 논변이나 진리 자체에 대한 맹목적 탐구가 아니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의 해탈을 얻는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실천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화살과 화살을 쏜 사람에 대한 해설보다는 화살을 맞은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독화살의 비유처럼 고통의 질곡에서 허우적대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붓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붓다는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과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학적으로 명쾌한 규정을 내리지 않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누구나 스스로가 답을 찾게 하였다. 붓다는 80세에 쿠시나agara에 이르러 열반을 맞이하였고 이때 슬피 우는 제자들을 향해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한다. 슬퍼하지 말고 법과 계율을 스스로 삼아 힘써 실천하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삼장의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삼장은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붓다의 말씀에 수록한 경장, 계율을 기록한 율장, 경전과 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모은 논장을 가리킨다. 1차 결집은 붓다의 열반 직후 마하가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아난다, 우파리의 기억과 암송에 의해 경장과 율장이 성립되었다. 2차 결집은 붓다 열반 후 약 100년이 지나 아난다의 제자 아사가 소집하였는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율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었고 교단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뉘었다. 3차 결집은 기원전 3세기 무렵 아쇼카왕 때 목갈라파트타사의 주도로 열렸고, 각종 논서들이 논장으로 집성되면서 삼장이 모두 완성되었다. 이 시기까지를 초기불교나 근본불교라고 하고 이후 부파불교 또는 아비달마 불교의 시대가 열리면서 철학적이해가 심화되었다.

하지만 부파불교가 철학적 교리 논쟁에 빠지고 출가자 중심의 승원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실천수행과 신앙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혁신적 신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대승불교의 출현이었다. 대승불교는 재가신자 중심의 사리공양과 불탑신앙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일찍이 제기되었지만, 최근 부파의 교리와 활동에 근거한 출가자들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예불과 중생구제를 특징으로 하는 대승경전의 성립과 불전문화 및 구전 설법사의 등장도 불교의 신앙화, 대중화가 가속화된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대승불교의 대승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커다란 수레라는 의미로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나 철



중국 동황 맥고굴의 전경. 336년 건립되기 시작한 맥고굴은 위진남북조와 수, 당, 오대, 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불사가 진행된다. 서쪽에서 발원한 불교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문화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원전 1세기 새로운 불교운동  
‘자리이타’ 대승불교 개념 정착  
後漢시기에 중국으로 불교 전파  
율회·업 등 내세관, 東亞에 영향  
”

학이 아닌 보다 많은 중생과 함께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이타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이라는 말 속에 그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로 인해 대승불교 측에서는 기존의 부파불교에 대해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소승이라고 비판하였다.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에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았고 이는 인간이 붓다가 되는 역사이자 과정이었다.

대승불교가 이전의 불교와 달라진 점은 첫째, 붓다관의 변화로서 중생 구제를 위한 붓다의 본원과 자비가 강조되고 붓다는 교화와 구제의 주체이자 승배의 대상으로 신격화되었다.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법신, 보살이 공덕을 쌓아 성불한 존재인 보신, 중생의

제도를 위해 현세에 나타난 화신의 삼신관이 대두하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이나 온 우주공간에 편재한 사방불이 등장하여 시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부처가 출현하였다.

둘째, 보살과 그 수행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 대승의 보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바라밀 실천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중생을 의미하였다. 또한 보살은 붓다의 지혜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행의 실천적 주체였다.

셋째, 대승경전의 성립으로 1세기 이전에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정토 관계 경전이 등장하였고 2-5세기경에는 여래장경, 열반경, 해심밀경이 대두하였으며 6-7세기에는 대일경, 금강정경과 같은 밀교 경전이 등장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대승불교의 대표적 사상인 중관사상,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등이 나와 철학적 깊이를 더하였고 인명학과 같은 불교논리학도 발전하였다.

대승불교 성립 직후 불교는 언어와 세계관 등에서 전혀 이질적 세계인 중국에 전래되었고 문명사적 충돌과 문화와 사상의 변용을 초래하면서 동아시아인의 삶과 죽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중국에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이 전해졌고 인신론, 존재론 등의 사유방식과 심성 이해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율회와 업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내세관이 중국 문명의 현재 지향적 세계관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불교는 전래

직후부터 유교, 도교와 같은 중국의 토착사상과의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이후 상호간의 영향과 적대적 변용을 거치면서 중국 문명권에 수용, 정착되었다.

기록상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1세기 중반 후한의 명제 때이다. 명제가 꿈에서 황금빛 사람을 본 후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서역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이때 서역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사십이장경> 등의 경전과 불상을 흰 말에 싣고 왔고 한의 수도 낙양에 중국 최초의 사원 백마사가 창건되었다. 앞서 기원전 2세기 후반 한의 무제는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족을 격퇴하고 장건을 시켜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개척하였고, 이를 통해 기원 전후 무렵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었던 것이다.

이후 중국은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북에 각각 왕조를 세운 남북조시대의 혼란기를 거쳤다. 이에 현실적 고난 극복과 종교적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커졌고 도교와 함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불교 도입 초기에는 도교의 황로신앙에 의거해 붓다를 죽지 않는 불사의 신으로 여겼고 불로장생과 복을 비는 신앙으로 불교가 받아들여졌다. 도교 등과의 경쟁과 접목 노력은 불교의 중국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자가 인도로 가서 붓다가 되어 교화를 펼쳤다는 노자화호설이나 공자, 노자와 같은 중국의 성인이 원래 붓다의 제자였다는 삼성화 현실이 대두하기도 했다.

한편 연산 혜원(344~416)은 법신인 붓다의 영원성을 전제로 사후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신불멸론을 주장하여 업과 율회의 관념이 중국에 정착되는데 기여하였고 백관사 결사를 조직하여 정토신앙을 선구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그는 출가자인 승려가 세속의 근양에게 예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문불경왕자론’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국가권력과 교단의 분리는 동아시아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교단이 왕권과 국가권력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불교의 중국화나 토착화는 이질적 언어로 쓰인 불교 경전의 한역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불전 한역은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가 중국에서 확산되는데 필수적 전제였다. 초기에는 불교의 난해한 교리를 중국적 개념을 차용하여 이해하고 번역하는 격의불교의 단계를 거쳤다. 예를 들어 대승사상의 핵심 개념인 공은 연속적이고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한역 초기에는 없다는 의미의 무로 번역되었다. 이후 구마라집, 진제 등 불전 한역의 거성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불교 경문이 거의 한역되었고 불교교학과 대승사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졌다. 그로부터 다양한 교리를 연구하는 학파와 교단 조직을 갖춘 종파가 성립되었고 수당 시대에 불교의 중국화가 거의 완성되었다.

김용래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전공은 한국불교사 중 조산과 근대이다. 저서로는 <Glocal History of Korean Buddhism>, <조선 후기 불교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가 있다. 현재 동국대 HK교수 및 한국불교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불경 라디오 成佛



###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X 세로5.7cm X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이달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 불경목록 (음원저작권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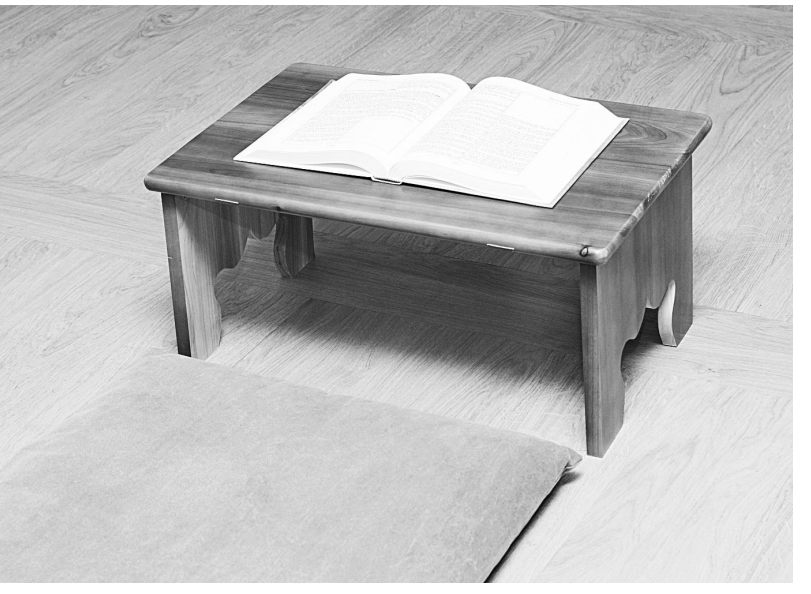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이념의 기도
-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밤바 꿰우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기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성인의 기도
- 9. 죄업 염불
- 10. 자비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빈손으로 왔다가
- 13. 사랑을 쏟으며
-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부르며
- 19. 나의 과실을 부지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점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전인 1
- 22. 광명전인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인산 혜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한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정진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찬불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경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김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불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명분

## 현불샵 특가판매

##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 60cm X D 40cm X H 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